

한국타이어

제49주년 창립기념 행사 거행

우리 회사의 제49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지난 5월 10일 조양래 회장과 홍건희 사장을 비롯한 임원, 내빈, 그리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에서 거행되었다.

먼저 회사발전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 전임직원과 가족, 참석한 귀빈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 홍건희 사장은 기념사에서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해”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선언한 ‘한마음, 한가족, 한목표운동’을 금년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홍건희 사장은 “격변하는 환경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세계 일류의 한국타이어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능력을 바탕으로 불과 10년후로 다가온 21세기를 영광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모두 새로운 결의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고 힘찬 전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20년 근속상 33명, 15년 근속상 17

명, 10년 근속상 143명, 모범 종업원상 21명과 우수분임조상, 우수제안자상, 우수부서상, 상담사원상 등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사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이 수여되었다.

사원 부인 교양교육 실시

사원 부인 60명을 대상으로 사원 부인 교양교육이 지난 4월 10일 인천공장에서 실시되었다. 회사생활과 회사경영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부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교육은 회사소개 및 국내외 태이어업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복지후생시설 견학에 이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단편적인 회사에 대한 인식을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폭넓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상돈 사우 상공부 장관상 수상

대전공장 제조부 재료과 주임인 한상돈 사우가 지난 3월 21일 상공의 날에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상돈 주임은 ’69년에 입사하여 20여년간 근무해온 모범 사원으로 현재 주임협의회 회

장직을 맡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축구시합, 인천공장 우승

영등포공장 축구회에서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3월 10일 대림동 소재 신영국민학교에서 써클간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공장 축구회 및 협력업체인 대광기업 직원들과 축구시합을 가졌다.

열띤 각축전 끝에 인천공장 축구회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영등포공장 축구회가, 3위는 협력업체인 대광기업이 차지했다.

대전 P/C교육장 개설

대전에도 P/C교육장이 생겼다. 대전 P/C교육장이 지난 3월 27일 개장되어 3월 26일~30일에 걸쳐 2차 20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동안 대전연구소나 공장, 각지점에서 P/C교육을 받으려면 본사까지 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원활한 P/C교육이 가능해졌다.

대전 P/C교육은 금년 안에 현장주임선까지 100% 초급과정을 이수케 하여 내년부터는 중급·고급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월간 제안활동」 배포

(주)금호 광주공장에서는 사원들의 제안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월간 제안활동」지를 구입, 분임조 단위별로 1권씩 배포하고 있다.

「월간 제안활동」지는 한국능률협회와 한국제안활동협회에서 매월 공동발행하는데 국내의 제안 우수기업 사례연구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한 발상기법 등 제안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사로 꾸며져 있다.

회사에서는 향후 분임조 단위로 배포하던 것을 확대하여 구독을 희망하는 모든 사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춘계 판촉활동 실시

당사 및 우리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12대의 서비스카와 제조, 업무, 연구소 아르바이트 인원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4월 3일~23일까지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였다.

이번 판촉활동은 전국의 백화점, 아파트단지, 주차장, 유

원지, 골프장 등에서 타이어점 검과 함께 판촉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실시되었다.

전사원 예절교육 실시

4월중 전사원 교양강좌가 정신문화원의 나장운 교수를 초청, 27일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를 통해 사원들은 한국인의 바른 사상, 윤리, 가치관을 되새기면서 퇴색되어 가지고 있는 효사상을 되돌아보며, 부모 공경과 형제간의 우애를 다짐했다.

곡성공장 첫 QCC과 발표회 가져

곡성공장은 설립후 처음으로 분임조활동 과발표회를 지난 4월 23일 각과별로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이제까지의 교육을 통한 이론적 경험과 현장가동에서 얻은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치루어졌는데, 생산·품질·원가·설비보전 등의 현장분임원들의 활동이 각종 Data와 표준화로 토의되어 심사원들로부터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공장발전의 시금석이 될 이번 대회 결과 선정된 금

상분임조는 다음과 같다.

제조1과 : 정검다리A

제조2과 : 채석장A

공무그룹 : 9회말

품질관리과 : 반딧불

렌트카사업부, 본격 영업돌입

렌트카사업부가 국내 렌트카 사업의 현황과 사업진출 타당성을 조사해온지 9개월만인 지난 4월 11일, 서울 한남동 주영업소를 비롯 전국의 9개 영업소(여의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마산, 전주, 강릉)가 일제히 Open식을 갖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렌트카사업부는 「항공에서 육상까지」의 연계운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룹 방침에 따라 개설되었는데, 50억원을 투입, 약 310대의 차량을 확보해 놓고 최고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업계 1위」, 「전국영업망」, 「항공권과 연계영업망」 구축 등을 모토로 진력하고 있는 렌트카사업부는 세계 제1의 렌트카회사인 미국의 허츠사와 기술제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 국내영업은 물론 장기적으로 아시아나 항공노선망과 연계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성타이어

울산지점 개업

(주)우성산업 타이어 사업본부에서는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에 부응하여 타이어 실수요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8일 경남 울산시에 울산지점을 개설하였다.

이날 김동철 부사장겸 타이어 사업본부장과 김중수 타이어 영업이사를 비롯 경남 지역 대리점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업식을 가졌다. 이로써 (주)우성산업은 전국 15개의 지점망을 구축,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PCR교육 실시

(주)우성산업 타이어 사업본부에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A/S를 위하여 전국 A/S 사원 및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PCR교육을 미쉐린 코리아 타이어 내수영업부 기술담당 송진태 과장이 강사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마친 피교육자

들은 5일간의 교육을 통하여 타이어공학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영업사원 수련대회 실시

(주)우성산업 타이어 사업본부는 지난 5월 13일 강원도 청평리 소재 청평사에서 영업사원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날의 수련대회는 본사 및 전국 지점의 전사원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우성가족의 돈독한 우의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김동철 본부장은 수련대회 발대사를 통해 우성인의 궁지를 가지고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다.

당일 오전 7시 본사를 출발 춘천을 거쳐 오봉산 배후령에서부터 산행을 시작, 오봉산 4봉을 거쳐 청평사로 내려왔다.

이날 수련대회는 전국 지점 및 부서별로 19조로 나누어져 산행을 하였는데, 90년대를 맞이하고 우성인의 궁지를 갖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산행을 끝낸 참가자들은 청평사에서 각조별로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장기자랑을 하

며 푸짐한 상품시상식도 가졌다.

점심식사후에 내린 비는 산행에 있어 잊을 수 없는 또하나의 추억이 되어 참가자들의 가슴에 남아 있게 되었다.

수영강습 실시

(주)우성산업 여사원 모임인 장미회(회장 : 장영순)에서는 여사원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수영강습을 지난 4월 2일부터 실시하였는데, 이 수영강습은 5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수영강습은 경인지역 지점 여사원 및 본사 여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매주 월, 수, 금요일 퇴근 후 1시간에 걸쳐 서초동 대지 프라자 수영장에서 실시되며, 심신단련은 물론 피부미용에도 좋아 여사원들간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미회는 이번 강습을 통하여 여사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명랑하고 즐거운 사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